

>>> 대우정보시스템 농구 동호회 'DIS T&C'



“수요일마다 열정으로 뭉치는 DIS T&C”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한번이라도...’

어느 가수의 노래 한 구절이다. 이 노래 말처럼 정말 덩크슛 한번 할 수 있기를 마음 속 깊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평생의 단 한번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종로구에 위치한 경기상고 체육관에 하나 둘씩 모여든다. 어둠이 깔린 저녁시간. 자율학습을 하는 교실의 불빛만이 교정을 밝히고 있을 뿐 모든 불빛이 꺼져 있다. 이러한 어둠을 그들이 깨운다. 그들은 바로 대우정보시스템의 농구 동호회 'DIS T&C' 회원이다.

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수요일이면 이곳을 찾아 농구를 한다. 수준급 실력은 아니지만 그들만의 드리블과 슛, 그리고 멋진 패스를 선보이며 기량을 뽐낸다.

때로는 유니폼보다는 와이셔츠에 정장이 더 울리는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농구에 대한 열정은 이 순간만큼은 현란한 드리블을 하고 덩크슛을 하는 선수들 못지않다.

이들은 회사 내에서도 농구 매니아로 통한다. 농구에 울고, 농구에 웃는 그림 사람들이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면 이들은 농구 얘기를 한다.

“얼마 전 프로농구가 개막했다며”로 시작된 농구 이야기는 점심 식사부터 차 잔을 마시는 자리까지 이어진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느 선수가 기량이 늘었다는 둥, 또 어떤 선수가 실력이 줄었다는 둥 여러 이야기들이 오간다.

현재 'DIS T&C'의 회원은 총 20여명이다. 아직 동호회가 발족 된지는 얼마 오래 되지 않는다. 바로 지난 4월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그동안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하고 싶었지만 누군가가 선뜻 나서서 사람이 없어 그냥 마음만으로 자신의 농구실력을 키워왔던 것이다.

이러한 마음속의 농구실력을 겉으로 끄집어 낸 준 것이 바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구매팀 장인식 과장이다. 장 회장은 늘 항상 바쁜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농구에 대한 열정을 잃지 못했다. "이제 만든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새 회원수가 20명이나 늘었어요. 아마도 마음속에 농구 실력을 키워왔던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은가 봐요."

회원이 20여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기뻐하는 장 회장의 말이다. 그러나 아직 20여명이 부족하다며 밤낮없이 분주하게 회원을 확보하려 다니는 회원이 있다. 바로 총무를 맡고 있는 황이름씨다.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황씨의 말이다. 황씨는 농구 동호회는 농구를 하는 기쁨도 있지만 경력으로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에게 대해 내부 직원들 간의 매개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DIS T&C' 회원 1차 스카우트 대상이 경력직 입사자들이다. 실제 맘을 홀리고 한바탕 농구를 하다보면 어느새 언제 입사했냐, 어느 부서냐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그저 동료라는 생각만 남는다고 한다.

며칠 전 'DIS T&C' 회원들에게 기쁜 일이 생겼다. 그동안 꿈만으로 여겼던 유니폼이 생긴 것이다. 모두들 각자 준비한 체육복으로 농구를 하던 모습이 왠지 조화롭지 못했는데 이제는 통일된 유니폼을 입으니깐 정말 한 팀 같다고 회원들이 입을 모은다.

실제 유니폼이 전달되던 날 모든 회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서 폼을 잡아보는 등 너무 좋아했다고 장 회장은 귀띔한다.

현재 'DIS T&C'는 실제 시합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정확히 'DIS T&C'의 수준이 어디인지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도 이들은 자신감과 열정만큼은 사회 농구인 최고의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DIS T&C' 회원은 이번 주 수요일도 변함없이 경기상고 체육관에서 농구화 끈을 동여매고 있다. **☞**

